

회원사 알루미늄박 업계 동향

1. 서두

알루미늄박은 식품, 제과, 연초 등의 포장재에서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각종 산업의 필수 소재인 중간재로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사용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알루미늄박은 미려하여 광택이 좋고 방습성, 가공성, 열전도성이 뛰어나 거의 모든 분야의 포장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용으로는 전기·전자 산업의 필수 소재 및 통신용 케이블의 혼선차폐용, 자동차용 및 냉방기 열교환기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 알루미늄박은 1988년 34KMT에서 1995년 88KMT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해 왔으나 1996년부터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1998년도에는 IMF의 여파로 70KMT정도로 위축되었다. 그러나 1999년도에 국내 산업 경기 및 수출분야의 회복세에 힘입어 90KMT를 회복하였고 2000년도에는 성장세가 이어져 100KMT로 위축된 상태이다.

알루미늄박 업계는 지난 2002년도 상반기부

터 어느정도의 회복세를 보였으며 3/4분기에는 약간 주춤한 상태이나 4/4분기에는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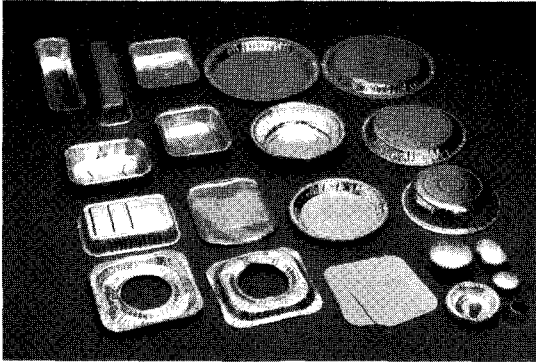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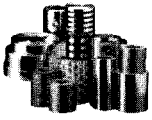
알루미늄박의 대부분은 최종소비재가 아닌 중간 원자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제과류 포장지에 사용되고 있는 연포장 부문은 경기가 침체되면 수요가 급격히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용 및 냉방기용 열 교환기 소재로 판매되는 산업재 부문도 경기 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알루미늄박의 특징을 알아보고 지난 94년 알루미늄박 분과위원회가 창립된 이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한국포장협회 알루미늄박 회원사의 수요 동향 및 제품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넥센알미늄(주)

넥센알미늄(주)은 1983년 미성알미늄으로 설립이 되었으며 1991년 넥센그룹에서 인수해 현재



▲ 넥센알미늄(주)가 생산하는 가정용 알루미늄 박

에 이르고 있다.

압연기 2대를 비롯해 분리기 2대, 소둔로 3대 등의 설비로 알미늄 박 생산을 도모하고 있는 넥센알미늄은 지난 2002년 39억원의 수출을 이뤘으며 올해 40억원의 수출을 이룰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지난해 국내 수요는 110억원이었으며 120억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넥센알미늄박은 고소의 압연기술로 박박의 0.005mm 두께에서 후박인 0.25mm 두께까지 여러제품 사양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으며 특히 편흔은 타사에 비교해서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포장용과 콘덴서 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대한은박지공업(주)

대한은박지공업(주)은 지난 1971년 설립된 이후, 기업경영을 통한 보국이념, 인재양성, 기술개발이라는 모토 아래 30여년간 발전해 온 업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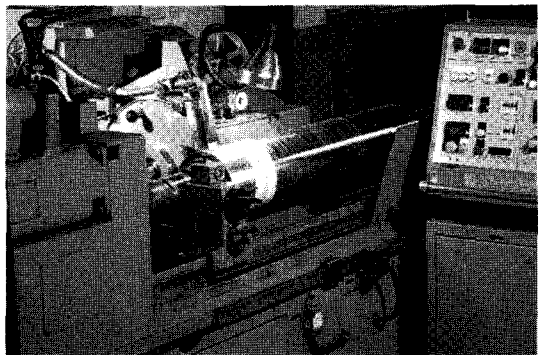
지난 1996년 9월에는 알루미늄 호일 업계 최초로 KSA/ISO 9001인증을 획득해 품질경영 체계 구축을 통한 고객 만족 실현과 품질의 신뢰성을 국내·외에서 보장받기도 했다.

현재 대한은박지가 보유하고 있는 압연기 6대는 AGC(두께자동조절기)와 AFC(자동판성형조절기)를 설치, 설비의 컴퓨터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를 통해 연간 35000톤의 알루미늄 호일과 11000톤의 식품포장지를 생산하고 있다.

대한은박지공업은 차량용, 에어컨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휠재 부분에서 100%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품질안정화와 기술개발을 통해 전자콘덴서의 소재로 사용되는 은극박 개발에 주력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대한은박지는 품질 우수성을 바탕으로 알루미늄 접합지, 알루미늄 호일, 알루미늄 호일 가공품 등을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중동, 유럽 등 세계 25개국의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레토르트 파우치 분야에 집중 공략, 수출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는 1200억의 매출액을 달성, 올해 1400억의 매출을 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수출과 내수는 5:5의 비율로 유지하고



▲ 대한은박지공업(주)의 Roll Grinding Machine

있다.

매년 7% 가량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대 한은박지공업은 이번 달 말, 기존의 알미늄 호일 압연 공장이었던 기흥공장과 아산공장을 통합해 준공식을 가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3. 동일알루미늄(주)

지난 1989년 창립된 동일알루미늄(주)은 최 신생산설비와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설립당시 월 1000톤을 생산하던 동일알루미늄은 현재 월 2000톤의 설비능력을 갖추고 생산 의 40%는 내수로 나머지 60%는 국내는 물론 중국 등 동남아 각국과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

동일알루미늄은 최신 성능의 압연기 2대와 롤 연마기를 핵심설비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으로 포장, 건축, 자동차, 전기, 전자 등 공업용재에서 생산용품에 이르기까지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제품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 동일알루미늄(주)의 알루미늄 호일

지난 2002년 디지털 전자장치 AFC 시스템 도입을 통해 품질 및 생산속도 향상의 발전을 통해 100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릴 계획이며 약 30%가량 신장할 계획이다.

지난 2000년에는 3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동일알루미늄은 올해 5000만불 수출 돌파라는 목적으로 힘차게 나가고 있다.

4. 롯데알미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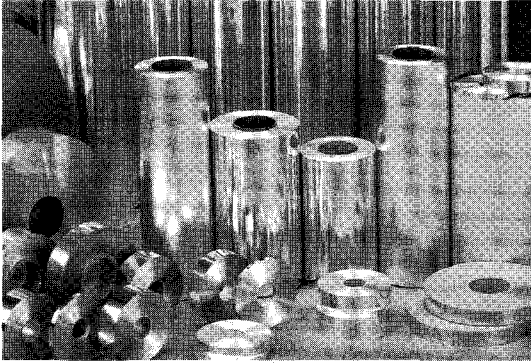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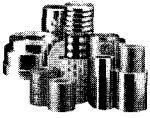
롯데알미늄은 1966년 11월 한국의 공업화가 시작될 무렵 정직, 봉사, 정열의 기업정신과 성실, 근면, 창조, 협동의 사훈을 토대로 설립되었다.

1968년 자체 기술에 의해 국내 최초 7 알루미늄박 생산을 시작으로 연포장재 및 생활용품 등을 개발 생산하여 고객에게 고품질 제품을 공급해 오고 있다.

1971년에는 적극적인 기술개발로 알루미늄박 및 접착알루미늄 박에 대한 국내최초의 KS마크를 획득했으며 1995년도에는 알미늄박, 연포장재, CAN, PET병 등 전 생산품목에 ISO 9002 인증을 동종업계 최초로 획득했다.

국내 알루미늄박 수요의 약 35%를 공급하는 한편 중국, 일본, 유럽, 미주에 이르기까지 각종 알루미늄박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동업계 최초로 5,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 등의 기술제휴를 통한 선진기술의 도입, 활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는 전 사업장에 ISO 14001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서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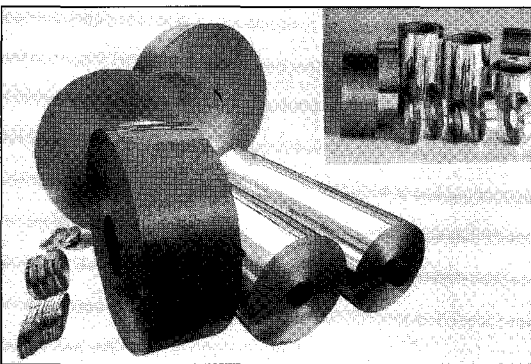
▲ 롯데알미늄(주)이 생산하는 알루미늄 박

미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롯데알미늄은 현재 그라비아기 2대, 엑스트루션 코터 3대, 각종 5대, 증착기 3대, 슬리터기 12대, 제대기 2대, 엠보싱기 1대를 보유하고 있다.

5. 삼아알미늄(주)

삼아알미늄(주)은 황무지나 다름없던 이 땅에 수입대체, 국산화 실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알루미늄 박 압연 산업을 일으킨 1969년이



▲ 삼아알미늄(주)의 생산제품

래, 1970년 세계적 알루미늄 업체인 알칸알미늄(주)의 제휴선으로 일본 최고의 알루미늄박 제조사인 동아알미늄(주)의 합작기업으로 시작됐다.

1985~6년에는 압연기 3호기를 증설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1988년 3,400여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 1989년에는 대기업으로 인정받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삼아는 고품질 알루미늄박 생산을 통해 클레르 알루미늄 호일, 일레븐 호일을 생산 판매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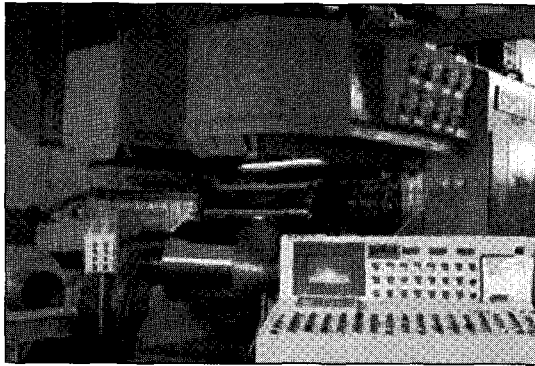
삼아알미늄은 2만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춘 세계수준의 박 메이커로 성장, 알루미늄박은 고압연 기술로 알루미늄대를 박박인 0.005mm에서 후박인 0.2mm 그 이상의 두께로 압연, 제조하는데 특히 핀홀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질 혹은 경질, 광택 혹은 무광택인기는 제품의 사양에 따른다.

때문에 끊임없는 기술의 연구 개발에 주력한 결과 국내 박 업계의 선도적 역할뿐만 아니라 생산의 50%를 수출하는 수출역군으로서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해 왔다.

1995년에는 ISO 9002 / KSA 9002 인증 획득, 1999년 1월~ 2000년 1월 ERP(SAP R/3) 구축 및 가동을 시작했다.

6. 한국알미늄(주)

한국알미늄(주)는 충북 괴산군 도안면 농공단지내 대지 5,645평, 건평 3,276평으로 1987년 설립돼 국내의 첨단산업용 알루미늄박을 연간 9,000M/T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연포장



▲ 한국알미늄(주)의 압연기

재 또한 83백만m 생산설비를 갖추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속에서 고객만족을 꾀하고 있다.

한국알미늄은 1989년 4월 충북 도안에 압연 공장준공(압연 1호기 가동), 그해 8월 압연 MILL 1호기 가동 (6 AL-FOIL 생산)을 시작으로 1998년 ISO 9002인증 획득,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품질방침 아래 전임직원이 강인한 추진력과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국내 알미늄박 및 연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알미늄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두께가 6 μ ~ 450 μ 이며 지가공성, 방습성이 뛰어난 알루미늄 제품을 선보여 식품 및 각종 포장재료로 각광을 받고 이에 다양한 범위의 알미늄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한국알루미늄은 압연기 2대, 분리기 2대, 분단기 4대, 연마기와 코팅기를 각각 1대 보유하고 지난해 4,441톤을 생산해 수출 305톤, 국내 수요 1351톤을 기록했다.

또한 올해는 알루미늄 판 5,300톤을 수입해 수출 2,468톤, 국내 수요 2,037톤을 예상하고 있다.

II. 맺음말

국내 박업계는 선발3사로 유지되어 왔으나 1980년대 말부터 후발업체의 시장참여로 현재는 6개 업체가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의 저성장에 따른 동종 업체간 시장점유율 쟁탈전이 전개돼 가고 시장확보를 위한 가격 경쟁 심화 및 출혈경쟁 예상되는 현재 각 사의 독특한 기술 개발만이 업계 발전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즉 수요, 공급면에서 불균형을 이룰때에는 단가가 큰 경쟁요소가 되며 일반적인 균형상태에서는 품질 및 신속한 납기 대응이 경쟁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중국 호일의 국내 유입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현재, 동업계라는 상부상조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독 자 결 렬 모 집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결렬문을 모집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열어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835-9041
E-mail : kopac@chollian.net